

경부선 무궁화 회송열차 토사로 인한 탈선(2보)

- 백원국 제2차관 현장 지휘, 신속·안전한 현장복구 지시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경부일반선 매포터널 무궁화호 열차 탈선사고 현장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복구장비가 투입되어 신속한 복구와 운행재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.
- 이번 사고 복구는 탈선차량(6량) 중 일부(4량)가 토사로 인해 전복되었고, 터널에 지속적으로 토사가 유입되는 상황까지 겹쳐 다음 주 월요일(17일) 오전 4시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.
 - 이로 인해, 경부 일반선 매포~신탄진간 운행하는 무궁화호(32회)와 ITX 새마을호(22회) 전구간 운행을 중지한다.
-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금일 07시 47분에 사고현장에서 국토부, 코레일 복구팀과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, 복구상황을 점검하였다.
 - 백 차관은 “열차 운행중지 등에 따른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신속한 복구에 최선을 다하되, 복구 작업 중 작업자의 안전도 중요하므로 작업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” 을 당부했다.
 - “열차 운행 상황에 대한 국민안내 및 홍보를 철저히하고, 대체교통 수단 등 마련에 만전을 기해 국민불편을 최소화할 것” 을 주문했다.
 - 아울러, “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, 토사유실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, 유사 피해가 없도록 철도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철도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할 것” 을 지시했다.

담당 부서	철도안전정책과	책임자	과 장	조성균 (044-201-4600)
		담당자	사무관	김강문 (044-201-4603)

